

청소년 독서 수업 지도안(학생용)

청소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금요일에 우리는

하마노 료코 지음 | 이소담 옮김



주제어_ 실패, 온난화, 기후위기, 입시, 꿈, 장래희망, 성장, 좌절과극복, 공존

우리교육

★ 독서 계획

독서 단계	활동 내용
독서 전 (독서 준비)	1. 책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 '온난화'에 대해 알아보기 - 제목의 '금요일'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기
독서 중 (책 속으로)	1. 독서 일지 작성하기 - 인상적인 문구에 밑줄 치고, 메모하며 읽기 2. 기후 위기는 부정적 인식이 만들어낸 가짜 위기일까? -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 - 문제의 성격에 따라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달리해도 좋을까? - 현실을 직시하고 고통스러운 것 VS 현실을 외면하고 정신 승리하는 것 3. 경쟁에서 실패한 내 마음 어루만지기 - 좌절감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심리 이해하기 - 목표 도달의 성공과 실패로 노력을 구분할 수 있을까? - 자기객관화를 작동해 좌절감 극복하기 4. 나는 소수자일까? - 소수자의 정의 - 나는 소수자일까 아닐까? - 사회에서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 알아보기 5. 기후 위기는 누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가? - 기후 위기를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 청소년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려면
독서 후 (토론과 논술, 독후 활동)	1. 뒷이야기 상상해서 적어 보기 -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적어 보기 - 친구들과 이야기 공유하기 2.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 환경 문제에 대한 히나타의 생각 변화 알아보기 -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 알아보기 - 나에게 잘 맞는 꿈을 찾는 방식 알아보기

★ 관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이나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문학: 인간과 다른 존재의 공존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한다.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책 소개

청소년기에 겪는 실패가 우리 인생의 실패는 아니에요!

학생으로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예상한 만큼 나오지 않거나,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연습했지만 기량이 좋아지지 않을 때면 우리 마음은 실망으로 가라앉거나 재능 없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느라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지요.

성적이나 재능의 기량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정체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내가 노력한 방법이 틀리거나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내 세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조금은 거리를 두고 취미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면서 한 가지 일에만 매몰되려는 내 마음을 다른 세상으로 꺼내 봅시다.

시점을 바꾸어 보면 지금 나의 고민을 해결할 색다른 방법이 떠오르기도 하고, 여태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많다는 것에 놀라며 새로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가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온난화가 고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궁금하면, 금요일에 만나요!

나 미쓰우치 히나타의 열다섯 살은 좌절로 시작되었다. 제1지망이었던 명문 사립고 입시에서 떨어진 것이다. 모의고사를 봐도 항상 합격률이 80퍼센트 이상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저런 고민으로 머릿속이 복잡한 채, 어느 금요일 외출했다. 전철 역 앞에서 시위하는 내 또래 학생들을 발견하고는 홀린 듯이 다가가 한 남학생의 친절한 설명을 들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신기하다. 무슨 짓을 해도 입시 탈락이라는 악몽을 머리에서 떨쳐 버릴 수 없었는데, ‘온난화’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고민을 싹~ 잊을 수 있었다. ‘고민 소멸’이라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다준 이유로 얼떨결에 금요 환경 시위를 함께하게 됐는데, 뭔가 이상하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오래 받는 건 우린데, 기후 위기를 가져온 어른들은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고교 입시에 실패하면서 꿈꾸던 미래가 사라진 것도,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 없는 어른들의 태도도 몹시 억울하다.

이래저래 맺힌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뭐라도 해 봐야지!

《금요일에 우리는》은 주인공 히나타가 고교 입시 실패라는 좌절을 딛고, 학교 친구·가족·길거리의 시민을 상대로 기후 위기 상황을 알리고 동참하길 요구하면서 다시 자기 꿈을 찾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독자는 청소년기에 겪는 여러 가지 좌절이 꼭 인생의 실패는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꾸는 꿈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독서 전

독서 준비: 책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아래의 예문은 ‘환경 운동’과 관련된 용어가 나오는 책 속의 단락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봅시다.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들어 본 적 없어?”

“어어,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온난화, 그거죠?”

“뭘,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은 기후 시계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클라이메이트 클락, 즉 기후 시계. 기후 변화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야. 산업 혁명 때와의 차이를 따져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때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지점이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돌이킬 수 없다니요?”

“기온 상승을 1.5도까지로 억제하는 것이 전 세계가 세운 중대 목표인데, 그걸 일시적으로라도 넘으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훨씬 심각해져.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배출해도 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정해져 있어. 그걸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앞으로 6년 남짓밖에 안 남았어. 그때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 주는 것이 기후 시계지. 그러니까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디지털시계인 거야.”

Fridays For Future, 줄여서 FFF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란 뜻이다. 스웨덴 환경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 변화에 관한 스웨덴 의회에서 제안한 것에 전 세계 사람들이 찬동하면서 창설된 국제적 풀뿌리 운동이라고 한다.

1. '기후 위기', '온난화'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이 단어에 대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적어 보세요. 잘 모른다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적어도 좋습니다.

2. 'FFF'는 금요일마다 환경과 관련해 시위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위하는 날을 금요일로 정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답해도 좋습니다.

3. 책 제목은 《금요일에 우리는》입니다. 제목을 통해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나름대로 유추해 봅시다.

독서 중

책 속으로: 독서 일지 작성하기

1.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인상적인 장면에 밑줄을 쳐 보고 인상 깊었던 이유를 간단히 메모하면서 책을 읽어 봅시다.

“이봐, 온난화라고 아무리 말해도 화산만 분화해 봐. 단숨에 기온이 내려갈 테니까.”

“어, 그래요?”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적으로 상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저 물어봤을 뿐인데, 눈에 너무 힘이 들어갔나? 그래도 그 사람은 곧바로 부자연스럽게 혀를 찼다. 위협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온난화니 뭐니 주장하는 거야? 하긴, 어린 애들 놀이니까. 애초에 그레타인지 뭔지 하는 꼬마도 요트로 대서양 횡단이라니, 웃기지도 않아. 그걸 쫓아다니는 매스컴도 자연 파괴 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

우쭐대는 남자 앞에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약 올랐지만 화산 분화 같은 건 전혀 생각 못 했으니까 곧바로 받아칠 수 없었다.

그때 료마 선배가 끼어들었다.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를 바라나요?”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잖아.”

“화산 대분화는 분명 일시적으로 온도를 낮춰 줘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대참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기온을 낮춰 줄 정도의 대분화에 기대를 걸고 온난화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너무 어리석지 않나요? 그레타를 쫓아다니는 매스컴은 그레타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 기후 변화를 진실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의 비율, 일본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아시나요?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해서 낸 결론인데도.”

담담한 설명에 상대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다.

“애들 주제에 길이나 막고 눈에 거슬린다고. 이쪽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남자는 험박하는 것처럼 말하고는 어깨를 으쓱이며 가 버렸다.

“쳇, 인상 별로네.”

료마 선배가 중얼거렸다.

2. 책을 읽으면서 작성한 메모와 떠올린 생각들을 독서 일지에 정리해 봅시다.

독서 일지

읽은 날짜	책 제목	작가	읽은 쪽수
	금요일에 우리는	하마노 쿄코	
책을 읽으며 정리한 내용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책 속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			

독서 중

책 속으로: 기후 위기는 부정적 인식이 만들어낸 가짜 위기일까?

다음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한 본문 내용입니다. 예문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때가 온다고 해서 딱히 지구가 폭발해서 소멸하거나 전 세계에 대재앙이 발생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건 아니야.”

“아, 그래요?”

“그래도 이대로는 몹시 혹독한 상황에 놓이는 건 분명해. 지금도 그런 조짐이 있고.”

료마 선배가 당연하지 않냐고 주장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다들 너무 태평하잖아요. 아, 너도 그랬다는 소리는 하지 말기예요. 솔직히 역시 실감이 안 나서. 그보다 다들 왜 아무렇지 않을 까요?”

“정상화 편향이라는 말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그럴 리 없다는 편향, 즉 치우친 사고가 작용해서 모든 것이 정상 범위라고 자동으로 인식하게 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 이게 도를 넘으면 비상사태에 대처하지 못하지.”

그렇구나, 하고 들으며 역시 말투가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잠자코 있자 료마 선배가 계속 설명했다.

“비상 알람이 울려도 오작동이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도망치지 않으니까 나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야.”

“즉, 기후 변화가 있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남들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렇지.”

“신경 쓰는 사람이 괴롭겠어요.”

“현실을 보지 않고 힘든 일을 겪는 것과 괴로워하면서 위기를 회피하는 것 중 뭐가 좋을까?”

1. 예상하지 못한 사태와 맞닥뜨렸을 때,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2. 비상사태가 아닌 평상시에는, 현실을 조금 왜곡해서 인식하면 도움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나요?

3.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힘든 일을 겪는 것과 괴로워하면서 위기가 아니라고 정신 승리하는 것 중 뭐가 좋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좋고, 개인적인 경험을 사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독서 중

책 속으로: 경쟁에서 실패한 내 마음 어루만지기

다음은 본문 중 히나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

그러나 합격 통지를 받은 건 모모네이고 나는 떨어졌다.

뭘 잘못했을까, 거듭해서 생각했다. 내가 떨어질 리 없는데. 괜찮게 시험을 치렀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몸이 어디 아팠어?”라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제2지망인 현립 마쓰카와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사쿠라기학원과는 전철역으로 두 개 떨어진 고등학교다. 그래서 두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전철에서 자주 마주친다. 사쿠라기학원의 교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끔따끔 아팠다. 중학생 때, “지금 자신이 머문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라는 말을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다. 그 말도 그 선생님도 너무 싫다.

모모네는 결과를 알고 그저 허둥거리며 “어쩌지, 어쩌면 좋아? 어떡해.”라는 소리만 반복했다. “히나랑 같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거 기대했는데.”라는 말도. 당연히 불을 자신이 있었냐고 쏘아붙일 여유는 없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분하다는 소리를 할 순 없고, 속상해하는 얼굴을 보이기도 싫으니까.

(나)

사쿠라기학원에서는 희망하면 2학년 여름방학에 단기 유학을 갈 수 있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건 어려서부터 내 꿈이었다. 그 꿈도 사라졌다.

의기소침한 기분에서 탈출하지 못해 동아리에도 들지 않은 채, 대충대충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될 리가 없었는데.

열다섯 살에 겪게 된 좌절. 그 감정을 질질 끌며 살아온 한 달 남짓이다. 나는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 무기력하다.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는 가지만, 타성으로 다리만 움직이는 상태였다. 가고 싶지 않았던 고등학교에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했다. 공부는 그럭저럭한다. 그것만이 최소한의 자존심과 의지였다.

(다)

곧바로 남한테 묻지 말고 직접 조사해.

“건방지네, 진짜.”

사람을 바보로 여기는 표정이 생생히 떠올랐다. 어쩔 이렇게 남을 알본담?

“어차피…….”

무심코 입에서 나오려고 한 것은 자기 비하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주눅 든 인간이 된 걸까. 고등학교 입시 실패.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가지 못했다는 생각. 그래도 역시 이대로 있기에는 화가 났다. 그런 생각으로 우선 ‘IPCC’를 검색했다. 검색 결과로 나타난 것이 지금 막 알려 준 사이트여서 또 분했다.

(라)

우리는 오래 알고 지낸 만큼 서로를 잘 아니까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안다. 문제 될 것 없는 대화를 나누고, 조금 어색하긴 해도 평온하게 헤어졌지만…… 역시 떨떠름했다.

나는 속이 좁다. 모모네가 날 내려다보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지만, 예전의 내가 모모네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여동생 같은 성격이고 응석받이여서 내가 하는 걸 따라 한다고 무시하지 않았던가?

1. 히나타는 고교 입시에 실패한 후,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가)	
(나)	
(다)	
(라)	

2. 시험 응시자 중에 일부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히나타는 자기는 당연히 합격할 것으로 생각하다가 불합격했습니다. (가)에서 분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관철은 척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 다른 세 개의 예문에서 히나타는 자기한테만 집중하지만, 예문 (라)에서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히나타의 시점이 변화한 계기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독서 중

책 속으로: 나는 소수자일까?

히나타는 시즈호와 엘레나와 함께 점심을 먹다가 친구 둘 다 왼손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도 왼손잡이구나.”

“응.”

“그래서 내 옆이 좋다고 한 거네.”

“맞아.”

내가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자, 시즈호가 설명했다.

“오른손잡이의 오른쪽에 앉으면 팔꿈치가 부딪치거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시즈호가 늘 왼쪽에 앉았구나.

“생각해 본 적 없었어. 시즈호가 왼손잡이인 거 알고 있었었는데.”

“보통은 생각 못 하지. 오른손잡이는.”

시즈호가 서글서글하게 웃었다.

“다수자의 눈에 소수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엘레나의 말이 내 심장을 푹 찔렀다. 지금까지 모르는 사이에 시즈호가 여러모로 배려했던 것 아닐까.

“글자 쓰는 거 너무 힘들지.”

“맞아. 그리고 주판, 열받아. 그걸 왜 배워야 하는 건데?”

“묘하게 쓰기 불편해. 왼손잡이용 가위.”

“맞아, 맞아. 또 자동 개찰구 지나는 거 힘들어.”

“자판기에 돈 넣는 곳도 오른쪽이고.”

“물방울 모양 국자도 불편해.”

“아아! 끝이 뽕죽한 그거!”

두 사람이 흥분해서 한동안 나는 오도카니 있었다.

“왼손잡이, 정말로 소수자구나.”

“나는 그것만이 아니지만.”

엘레나가 그런 소리를 하더니 주먹밥을 먹었다. 그것만이 아니라니, 그 외에도 스스로 소수자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는 소린가?

나는 어떨까.

“……나도 소수자일지도.”

그렇게 말한 것은 마쓰카와고등학교에 도무지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엘레나의 말처럼 지루해하는 것이 맞았다. 다른 급우들도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엘레나가 한 말은 다른 거였다.

1. 어떤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히나타는 왜 자신도 소수자라고 생각했나요?

3.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독서 중

책 속으로: 기후 위기는 누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일까?

1. 히나타가 학교 문화제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조사해 전시하기로 하고 참여하는 친구들과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친구들은 왜 기후 위기가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했나요?

그날 중에 첫 미팅을 했다. 내 자리 주변에 모여 대화했는데, 미키는 기후 문제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히로야는 조부모님이 야마가타현에서 농업을 하는데, 식량 문제가 특히 걱정이라고 했다.

“일본은 에너지 부족과 마찬가지로 식량도 자급률이 낮잖아. 그런데 식품 손실이 크고, 푸드뱅크도 거의 도입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대화를 나눈 적 없었던 히로야가 이런 일에 관심이 있었을 줄이야. 말해 보지 않으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모른다.

“생물다양성 문제도 그래. 다양성을 잃으면 인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잖아. 시골은 멧돼지가 늘었다. 사슴이나 미국너구리도 늘어서 마을까지 내려와 피해를 준다는 얘기,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

히로야가 그렇게 말하자, 미키가 말을 받았다.

“외래종 문제지. 감염증도 원래 바이러스를 지녔던 야생동물 세계에 인간이 끼어들어서 퍼진 면이 있다고 들은 적 있어. 거기에 경제 글로벌화 때문에 순식간에 확산하고.”

“다양한 문제가 깊은 곳에서 연결되었네.”

시즈호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옆자리의 소타가 끼어들었다.

“환경 문제도 중요한데 빈곤 문제도 중요하지 않아?”

미키가 곧바로 반응했다.

“그것도 관계가 없지 않아.”

“무슨 뜻이야?”

엘레나가 물었다.

“들어봐, 기후 위기로 심각한 상황에 부딪치는 건 비교적 가난한 나라이고, 같은 나라라면 가난한 사람이 더 괴로워져.”

미키의 말이 옳았다. 그러니 기후 위기는 인권 문제라고 한다. 그래도 소타는 냉

담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런 거창한 게 아니어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돈이 들잖아. 우리 집도 사립대나 의대는 절대로 불가능해. 뭐, 의대에 가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 학교는 집에 여유가 없어서 아르바이트하는 애들, 꽤 많잖아. 나도 그렇고.”

“나도 그래. 우리 부모님이 비정규직이거든. 일본 정치는 교육 분야 지원에 소극적이니까 조금이라도 벌어야 한대.”

엘레나가 태연하게 말했다.

“생활에 여유가 없어……. 온난화 같은 거, 머리로는 중요한 줄 알아도 솔직히 닥친 일만으로 벅차서 신경 쓸 상황이 아니야. 나만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맞아. 나도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2년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어. 중학생 때 농구부에 들어갔는데, 성장기라 농구화를 금방금방 바꿔야 하잖아. 사 달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그만뒀어. 보건실 선생님한테 빵을 받은 적도 있고.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가난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야. 그렇지만…….”

엘레나가 말을 흐리자 소타가 받았다.

“그렇지만 그 말, 자기 자신에게 계속 들려줘야 하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응, 맞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따끔따끔 아팠다. 나의 유복한 환경에 죄책감을 느낀다. 나는 아직 내 힘으로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다. 생활이나 학업 면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 달라고 말하지 못한 적도 없다. 사립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 주실 것이다. 유학도 부탁하면 보내 주시겠지. 이렇게 여유로운 처지이면서 건방진 소리를 해도 되는 걸까.

2. 다음은 책 속에 나오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사회 참여 활동은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기쁘기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은커녕 사람들에게 공감받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때 지치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가)

서서히 기쁨이 밀려왔다. 내 말이 전해졌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도 시즈호, 금요일은 안 되지?”

“응, 매주 금요일에 동네 절에서 어린이 식당 일을 돕거든. 요리하는 것도 돕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그림책을 읽어 주는 것도 조금 해.”

“……시즈호, 자원봉사하고 있었구나?”

나는 시즈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가볍게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나는 뭐랄까, 시즈호를 다정하긴 해도 태평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가. 조금은 시건방지게 내려다본 것 같다…….

“그보다는 나를 위해서야. 사실은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먹을 걸 제공한다고 뭐가 되겠나 싶어. 게다가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고, 애초에 자기만족이 아닌가 싶어서.”

(나)

“아야는 이 스탠딩 시위를 혼자 시작했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자, 료마 선배가 서 있었다.

“맞아. 아야는 진짜 대단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소라이 마도카 선배다. 단발머리에 동글동글한 얼굴, 이름은 조금 전에 들었다.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 내가 무슨.”

“대단하다니까.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도시락 업체에 제안 해서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게 했어. 게다가 혼자 이렇게 서다니, 어지간해서는 못 하는 일이지.”

이번에는 아메미야 고스케 선배다. 역시 몇 분 전에 이름을 알았다.

나는 감탄 어린 눈으로 아야 선배를 봤다.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머리가 좋으니까 자신감도 있는 걸까? 이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형편없다.



독서 후

뒷이야기 상상해서 적어 보기

1. 히나타는 환경 운동을 통해 입시 실패라는 좌절을 딛고 자신의 꿈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히나타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속에 밝혀진 대로, 유학 가서 환경 운동을 더 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연히 환경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요? 자유롭게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해서 써 보세요.

2. 친구들의 발표를 들어 보며, 각자의 결말을 비교해 보고 가장 흥미로운 결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독서 후

토론과 논술: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는 히나타가 환경 문제 연구회 사람들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산책하는 도중의 상황이고, (나)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히나타의 모습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제시된 활동을 해 봅시다.

(가)

느티나무 가로수길을 걷는데 매점이 있었다.

“마실 것 좀 사 올게요.”

“어?”

“목이 말라서.”

“설마 페트병에 든 음료를 사려고? 물병, 안 가지고 다녀?”

료마 선배가 대놓고 얼굴을 찌푸려서 말문이 막혔다. 물병이 없진 않은데 왜 챙겨 오지 않았을까. 음료를 사지 못하게 되었다.

“일본은 페트병 회수율이 높다고 하지만 10퍼센트 이상은 미회수이고 그게 27억 병이나 돼. 중요한 건 리듀스, 다시 말해 절감하는 거야.”

27억 병이라는 숫자에 놀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역시 목이 말랐다. 그때 문득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저거라면 괜찮겠지.

“……소프트아이스크림이 있는 것 같아요. 먹을래요?”

(나)

나의 거만함을 사과하고 싶다. 친구가 적은 것은 지금도 똑같고, 동아리 활동도 하지 않는다. 아마 다들 나를 성적은 좋아도 가까이하기 어려운 애라고 여길 테지. 그런 내가 급우들에게 뭔가를 제안한다. 이상한 애처럼 보일까,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볼까. 애초에 기후 위기에 흥미를 느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생각하면 역시 불안하다.

그래도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문화제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조사해 전시하고 싶습니다.”

1. 위의 내용과 책 전체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래 표를 작성해 봅시다.

환경 문제에 대한 히나타의 처음 생각	
환경 문제에 대해 히나타의 바뀐 생각	
히나타의 생각이 바뀐 결정적인 이유	

2. 히나타는 환경 문제에 그리 깊은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환경 문제 연구회 사람들을 만난 후, 환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히나타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면 모두 이야기해 봅시다.

히나타가 환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3. 히나타는 환경 문제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관련하여 공부하고, 활동도 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관련된 노력을 하는 것이 다양한 활동을 해 보고 꿈을 차츰 구체화하는 것 중 어떤 편이 자신에게 더 맞다고 생각하나요? 두 가지 방법에서 각각 장단점을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꿈을 찾으려면
(처음부터 꿈의
목표를 정하고
노력해야 한다/
딱히 관심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면서 천천히
찾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장단점을 포함하여)

